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09. 13.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 1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 2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 3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 4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둔 밥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마태복음 4장 18~20절

다 같이

-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 어부라
-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시던 초기에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때 저편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법을 아는 순박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넓고 고요한 바다에서 그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잔꾀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맡기며 고기를 잡는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성과를 내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라도 성과 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위주의 구조는 다른 사람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학자도 아니고, 율법을 통달한 바리새인들도 아닌 순박하고 잔꾀가 없는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도 절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수함을 간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다양한 종류와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아 본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들이기에 날마다 넓은 바다에 나갔을 것입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많은 양의 고기를 잡으며 그물의 무게를 통해 기쁨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편견 없이 어울리는 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부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 건 어떻게 살 건 구별 없이 모두에게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 때,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라고 해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결단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순박한 어부들이었고 많은 물고기와 다양한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었을지라도 마지막 이 한 가지 결단이 없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 주던 그물을 과감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최악의 노예 되었던 옛 생활 모습을 버리고 주만 온전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런 마음을 미리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의 생활 모습, 사고방식 등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옛 생활 모습을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을 잡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불러주셨듯 우리 교회 가정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전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다 같이

1. 나는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삶 속에서 감당하고 있나요?
2.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꾸기 힘들었던 옛 습관들이 있나요? 이 시간 가정과 함께 나누고 과감히 버리기를 다짐해봅시다.

중보 기도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다 같이

1. 큰빛은혜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도록
2. 언제든 주의 전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속히 이루도록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4. 목회자와 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5. 큰빛은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도록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